

사회봉사 I 교과목 수강생들

- 아동, 청소년 분야 -

■ 조혜승 (교육학과 05학번)

생각으로, 실천으로 배우는 것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면서도 이것을 막상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충분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었을 텐데 부끄럽게도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봉사 교과목 중 아동·청소년 부분을 신청하여 '성장학교 별'이라는 대안학교 선생님이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한 학생의 개인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맞게 된 학생은 학습지체증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나이는 18세였지만 학습수준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수학과 국어를 공부하였는데 아이를 만나기 전 학교 측으로부터 이 아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수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대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이 아이와 나름대로 친해지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학습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교재를 가져오지 않기도 했으며 급기야 학교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개인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이는 너무 많다면 저에게 다른 아이를 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는 다른 아이를 맡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번 8월에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중3 학생이고 그 동안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검정고시는 혼자서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이렇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은데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도와줄 선생님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봉사활동은 의무적으로 하면 그 의미가 떨어진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봉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비단 제가 봉사하고 있는 학교뿐이 아닐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봉사기관들이 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과목이 이 필요들을 충당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교과목을 통해 평소 봉사를 하고 싶었던 학생들은 보다 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봉사기관들 중에서 자신의 관심과 맞는 활동을 체험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학과 학생인 저의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교실에서 배웠던 지식과는 달리 현장 교육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학점은 1학점에 불과한 과목이지만, 사람에 따라 1학점을 훨씬 능가하는 배움을 얻어 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을 통해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함으로써 기쁨도 얻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린 지성〉 4호에서는 이번 1학기에 처음 개설된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생들의 수강 소감을 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강의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학점 교양과목으로, 사회봉사 I, 사회봉사 II, 사회봉사 III 과목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총 5개의 사회봉사 I 교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5개의 교과목은 각각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노인 관련 기관, 시민단체 관련 기관, 기타 관련기관에서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강지윤 (경제학부 05학번) - 장애인 분야 -



사람의 가치

사회봉사교과목을 계기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과 나와 우리,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자원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연 맺기 학교는 초등학생, 중학생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보조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 대인 관계 형성,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봉천동 자원 활동 센터에서 장애아동과 교사가 일대일로 인연을 맺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연 맺기 학교의 교사가 되어 소외되어 있는 장애아동들을 대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누구인지, 그들과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또 사회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장애아동들은 정규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고, 친구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사람이기에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사회는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식했고 책임은 그들의 가족에게만 지워져 있었습니다. 언어장애, 신체장애, 성격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또 그들의 부모님과 인연을 맺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들이 처한 입장을 조금이나마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입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아동들과 함께 하고 성격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개설되었던 사회봉사 교과목은 책에서 피상적, 이론적으로 옳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에 많은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봉사 경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사는 세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저에게 많은 고민과 문제 의식, 그리고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고, 앞으로 계속될 사회봉사가 고민의 답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교육과 모든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학생들의 사회봉사 참여가 지속되고 늘어나길 바랍니다.

봉사하며 배우는 삶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사회봉사 교과목 중 노인분야 강좌를 듣게 된 지구환경과학부 05학번 김기현 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사회봉사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마침 교과목으로 나오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저를 맡아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노인분야 강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기관은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새롬평생대학이며,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강의가 끝난 후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조별 활동에 참여해서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좀 먼 관계로 화요일 저녁 시간이 봉사활동으로 가득 차버려 힘들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니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정말 재미있게 느껴져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봉사란 자신이 남한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도 남에게 많은 것을 배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얻어가는 것이 더 많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 강좌라서 그런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배우는 것이 훨씬 많아 정말 제가 다른 대학을 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봉사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모든 건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가 봉사를 한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사회봉사 교과목을 또 신청하고 싶습니다. 새롬평생대학 봉사자 여러분 파이팅!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생분들 파이팅!

현실을 배우는 경험



평소에 시민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던 중이었는데, 이번 학기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통해 한국여성재단에서 활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활동 기관은 여성문제 관련 기관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여성재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재단과의 첫 만남은 3월 말 홍대 근처 한 시민단체의 건물 지하를 빌려서 진행된 '한국여성재단과 CJ홈쇼핑이 함께 하는 2006 엄마에게 희망을!'이라는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격월로 CJ홈쇼핑을 통해 소외 여성(가장)들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고,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해주는 행사였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할 일은 후원자들의 전화에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후원 전화가 얼마나 올까 싶었는데, 방송 시간이 되자 약 50대의 전화들이 빗발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모집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도 기억에 납니다.

요즘에는 기관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의 주요 사업은 민간 차원의 후원금을 모아 '여성'과 관련된 사회복지단체나 운동단체에 후원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학생 신분으로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작은 사무실에서 10명 남짓 되는 분들은 매주 무척 바쁘시기 때문에 일거리를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민망해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사무보조들을 찾아가며 해야 하는 등 적극성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들을 정리하고 귀동냥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단순히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방법 뿐 아니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하는 하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넘어선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 동안 개인적으로 고민하던 여성문제에 대해 현실감각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쌓은 소중한 추억

다음 학기에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떠날 예정인 저는, 외국인 친구들과 만나는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어교육원 봉사활동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은 일본인 도쿠보 시마, 몽골인 우린 절망이었습니다. 주중에는 한국책 한 권을 택하여 같이 읽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서울 근교를 여행하며 우리나라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를 골랐고, 국립 중앙 박물관, 과천 현대 미술관, 한국 영화관 등을 같이 갔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의 소중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외국인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무소유'를 외국인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재미보다는 교양을 추구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은 지루해했습니다. 가볍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봉사활동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다가가는 자원봉사자 보다는, 그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외국인'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에 부담을 버리고, 친구를 만나는 심정으로 가볍게 다가가면 그들도 우리를 더욱 좋은 도우미, 좋은 친구로 기억할 것입니다.



배움의 봉사활동

작년 겨울 방학 즈음에 별 생각 없이 정보화광장 게시판을 살펴보다가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새내기일 때 막연한 기대와 동경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주위에서 적절히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런 조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저하지 않고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에 지원했고, 다행스럽게도 2기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이 올해 신설된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인정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월에 미리 멘토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교육을 받고, 3월부터 새내기와 멘토-멘티 관계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즐겁고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 아쉬웠던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고 느꼈던 점을 멘티에게 이야기하고, 진로, 연애, 교우관계, 공부, 동아리 등 멘티가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인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제가 새내기일 때 원했던 것을, 그리고 아마도 06학번 새내기들 역시 필요로 하는 것을 멘토의 역할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다는 점이 보람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파릇파릇한 새내기들과 만나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큰 즐거움입니다.

사회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아주 작은 시간을 이용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조차도 충분히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가 끝난 후에 얻게 될 1학점은 즐거움과 보람에 곁들여지는 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